

1982學年度

新入生 實態調査 結果分析

許鐵洙·玄惠慶

〈目 次〉

- | | |
|-----------------|----------------|
| I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목적 | 2. 제2부 의견조사 결과 |
| II 조 사 내 용 | V 조사결과의 요약 |
| III 방법 및 절차 | 1. 실태조사 결과 요약 |
| IV 실태 및 의견조사 | 2. 의견조사 결과 요약 |
| 1. 제1부 실태조사 결과 | |

I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목적

요즘 학생지도의 문제는 교수 및 연구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관심영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때문에 학생지도의 성패는 학생들이 대학사회라는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되면서부터 학생들이 환경이 어떠하며 그들의 생각과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파악하여 각종 계획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만아니라 당면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여 전전하고 보람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학생활 초기에 각종 자료와 문제점을 조사·파악하는 데 달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에 새로이 입학하는 학생들에 관한 각종 자료와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본 대학의 학생지도를 위한 계획수립과 실제 지도에 필요한 참고자료들 활용하고자함에 그 목적이 있다.

II 조 사 내 용

본 조사는 제1부와 2부로 나뉘어 조사하였는 바 제1부에서는 신입생의 일반적 특성 및 가정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들, 제2부에서는 고등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과 대학생활에 관한 사항 및 당면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 파악과 대학 졸업 후의 계획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Ⅲ 방법 및 절차

본 조사는 1982학년도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소에서 제작된 설문지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배부·작성하여 백분률(%)로 그 결과를 처리하였으며 대학별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 학 별	신 입 생 수			대 상 자			%
	남	여	계	남	여	계	
인 문 대 학	86	174	260	82	147	229	88.1
사 회 과 학 대 학	298	66	364	202	55	257	70.6
사 범 대 학	200	263	468	157	240	397	84.8
농 과 대 학	161	47	208	132	39	171	82.2
해 양 과 학 대 학	308	56	364	237	48	285	78.3
야 간 강 좌 부	143	39	182	53	13	66	36.3
총 계	1,196	650	1,846	863	542	1,405	76.1

Ⅳ 실태 및 의견조사

제 1 부 실태조사 결과

1. 신입생의 일반적 특성

<表 I-1> 연 령 (%)

항 목 별	대 학 별						성 별		계
	인 문	사회과학	사 범	농 과	해양과학	야간강좌	남	여	
23세 이상	5 (2.2)	4 (1.6)	4 (1.0)	4 (2.3)	7 (2.5)	26 (39.4)	47 (5.4)	3 (0.6)	50 (3.6)
22세	3 (1.3)	1 (0.4)	3 (0.8)	2 (1.2)	—	2 (3.0)	10 (1.2)	1 (0.2)	11 (0.8)
21세	5 (2.2)	3 (1.2)	4 (1.0)	4 (2.3)	2 (0.7)	4 (6.1)	17 (2.0)	5 (0.9)	22 (1.6)
20세	3 (1.3)	23 (8.9)	9 (2.3)	12 (7.0)	32 (11.2)	10 (15.1)	77 (8.9)	12 (2.2)	89 (6.3)
19세	39 (17.0)	52 (20.2)	60 (15.1)	32 (18.7)	86 (30.2)	12 (18.2)	208 (24.1)	73 (13.5)	281 (20.0)
18세	155 (67.7)	156 (60.7)	268 (67.5)	107 (62.6)	145 (50.9)	11 (16.7)	459 (53.2)	383 (70.7)	842 (59.9)
17세 미만	19 (8.3)	18 (7.0)	49 (12.3)	10 (5.8)	13 (4.6)	1 (1.5)	45 (5.2)	65 (12.0)	110 (7.8)
계	229	257	397	171	285	66	863	542	1,405

신입생들의 연령분포를 보면(〈표 I-1〉참조) 만 20세 이상되는 학생들이 12.3%나 되며 특히 야간강좌부에는 고령자가 63.6%나 되어 야간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연령이 높은 편이다.

〈表 I-2〉 가 족 주 소 지 (%)

항 목 별	대 학						강 령		계
	인 문	사회과학	사 법	농 과	해양과학	야간강좌	남	여	
제주도	109 (47.6)	125 (48.6)	190 (47.9)	53 (31.0)	106 (37.2)	37 (56.1)	343 (37.7)	277 (51.1)	620 (41.1)
서귀포시	42 (18.3)	39 (15.2)	60 (15.1)	33 (19.3)	44 (15.4)	4 (6.1)	137 (15.9)	85 (15.7)	222 (15.8)
남	50 (21.8)	46 (17.9)	66 (16.6)	35 (20.1)	53 (18.6)	12 (18.2)	168 (19.5)	94 (17.3)	262 (18.6)
북	23 (10.0)	42 (16.3)	68 (17.1)	42 (24.6)	63 (23.9)	11 (16.7)	176 (20.4)	78 (14.4)	254 (18.1)
서울	1 (0.4)	1 (0.4)	1 (0.3)	-	1 (0.4)	-	2 (0.2)	2 (0.4)	4 (0.3)
부산	-	-	-	1 (0.6)	3 (1.1)	-	4 (0.5)	-	4 (0.3)
경기도	2 (0.9)	-	-	1 (0.6)	-	-	2 (0.2)	1 (0.2)	3 (0.2)
강원도	-	-	2 (0.5)	-	2 (0.7)	-	3 (0.3)	1 (0.2)	4 (0.3)
충청북도	-	-	2 (0.5)	-	-	-	2 (0.2)	-	2 (0.1)
충청남도	-	-	2 (0.5)	-	1 (0.4)	-	3 (0.3)	-	3 (0.2)
경상북도	-	-	2 (0.5)	1 (0.6)	2 (0.7)	-	5 (0.6)	-	5 (0.4)
경상남도	-	-	-	-	-	-	-	-	-
전라북도	-	-	-	2 (1.2)	1 (0.4)	-	2 (0.2)	1 (0.2)	3 (0.2)
전라남도	2 (0.9)	4 (1.6)	4 (1.0)	3 (1.8)	4 (1.4)	2 (3.0)	16 (1.9)	3 (0.6)	19 (1.4)
계	229	257	397	171	285	66	863	542	1,405

〈I-2〉는 신입생들의 가족 주소지별로 실태를 파악한 것인데 조사대상자 1,405명 중 제주도에 가족들의 주거를 둔 학생들이 96.6%를 차지하고 있어서 학생 대부분이 제주지역 출신들로 지역별 구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타지역 학생들은 3.4% 밖에 되지 않으며 사범대학과 해양과학대학에서 각각 13~4명 정도가 타도 학생들이나 전체 입학생수 1,846명 중 76.1%인 1,405명이 조사에 참여했으므로 타도 학생들이 이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리라 예상된다.

〈表 I-3〉 가 족 수 (%)

항 목 별	대 학 별						성 별		계
	인 문	사회과학	사 법	농 과	해양과학	야간강좌	남	여	
2 명 이 하	3 (1.3)	3 (1.2)	2 (0.5)	5 (2.9)	8 (2.8)	3 (4.5)	20 (2.3)	4 (0.7)	24 (1.7)
3 ~ 4 명	15 (6.6)	29 (11.3)	40 (10.0)	13 (7.6)	27 (9.5)	15 (22.7)	97 (11.2)	42 (7.7)	139 (9.9)
5 ~ 6 명	102 (44.5)	103 (40.1)	177 (44.6)	67 (38.2)	123 (43.2)	26 (39.4)	383 (44.4)	215 (39.7)	598 (42.6)
7 ~ 8 명	89 (38.9)	95 (37.0)	157 (38.5)	75 (43.9)	93 (32.6)	17 (25.8)	295 (34.2)	231 (42.6)	526 (37.4)
9 명 이 상	20 (8.7)	27 (10.5)	21 (5.3)	11 (6.4)	34 (11.9)	5 (7.6)	68 (7.9)	50 (9.2)	118 (8.4)
계	229	257	397	171	285	66	863	542	1,405

가족수별 비율을 살펴보면 5명 이상의 가족수가 약 90% 정도가 되며 대학별로나 남·여 별로 큰 차이가 없다.

〈表 I-4〉 부 모 생 존 여 부 (%)

항 목 별	대 학 별						성 별		계
	인 문	사회과학	사 법	농 과	해양과학	야간강좌	남	여	
부	1 (0.4)	2 (0.8)	7 (1.8)	1 (0.6)	3 (1.1)	22 (33.3)	27 (3.1)	9 (1.7)	36 (2.6)
모	27 (11.8)	35 (13.6)	54 (13.6)	25 (14.6)	42 (14.7)	40 (60.6)	158 (18.3)	65 (12.0)	223 (15.9)
부 모	199 (86.9)	219 (85.2)	334 (84.1)	143 (83.6)	240 (84.2)	4 (6.1)	673 (78.0)	466 (86.0)	1,139 (81.1)
부 모 모두 안 계	2 (0.9)	1 (0.4)	2 (0.5)	2 (1.2)	-	-	5 (0.6)	2 (0.4)	7 (0.5)
계	229	257	397	171	285	66	863	542	1,405

부모의 생존 여부에 대하여는 〈표 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 모두 생존해 계신 81% 이외에는 편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학생이 18.5%가 되고 있으며 특히 야간 강좌부에는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생활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부모 또는 호주의 직업별 상태를 보면 (〈表 I-5〉참조) 농업에 있어서도 감귤업이 수입 원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55.9%) 다음으로는 공무원(14.8%)과 상업(12.2%)의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여러 직업들도 조금씩 고루 분포되어 있다.

<表 I-5>

부모 또는 호주의 직업

(%)

항 목 별	대 학 별						성 별		계
	인 문	사회과학	사 범	농 과	해양과학	야간강좌	남	여	
공	21	19	43	13	19	2	47	70	117
	(9.2)	(7.4)	(10.8)	(6.5)	(6.7)	(3.0)	(5.4)	(12.9)	(8.3)
무	3	8	13	-	18	2	34	10	44
	(1.3)	(3.1)	(3.3)		(6.3)	(3.0)	(3.9)	(1.9)	(3.1)
원	9	5	23	4	7	-	21	27	48
	(3.9)	(1.9)	(5.8)	(2.3)	(2.5)		(2.4)	(5.0)	(3.4)
농	119	152	189	117	166	42	529	256	785
	(52.0)	(59.1)	(47.6)	(68.4)	(58.2)	(64.0)	(61.3)	(47.2)	(55.9)
상	31	31	64	11	27	8	91	81	172
	(13.5)	(12.1)	(16.1)	(6.4)	(9.5)	(12.1)	(10.5)	(14.9)	(12.2)
광	6	1	5	8	2	-	11	11	22
	(2.6)	(0.4)	(1.3)	(4.7)	(0.7)		(1.3)	(2.0)	(1.6)
운	6	9	10	4	4	-	22	11	33
	(2.6)	(3.5)	(2.5)	(2.3)	(1.4)		(2.5)	(2.0)	(2.3)
수	2	2	7	-	4	1	10	6	16
	(0.9)	(0.8)	(1.8)		(1.4)	(1.5)	(1.2)	(1.1)	(1.1)
전	1	3	3	2	1	1	7	4	11
	(0.4)	(1.2)	(0.8)	(1.2)	(0.4)	(1.5)	(0.9)	(0.7)	(0.8)
회	10	14	10	6	7	1	21	27	48
	(4.4)	(5.4)	(2.5)	(3.5)	(2.5)	(1.5)	(2.4)	(5.0)	(3.4)
기	10	3	7	1	19	-	24	16	40
	(4.4)	(1.2)	(1.9)	(0.6)	(6.7)		(2.8)	(3.0)	(2.8)
무	11	10	23	5	11	9	46	23	69
	(4.8)	(3.9)	(5.8)	(2.9)	(3.9)	(13.6)	(5.3)	(4.2)	(4.9)
계	229	257	397	171	285	66	863	542	1,405

<表 I-6>

생활 정도

(%)

항 목 별	대 학 별						성 별		계
	인 문	사회과학	사 범	농 과	해양과학	야간강좌	남	여	
상	4	3	3	3	5	-	8	10	18
	(1.7)	(1.2)	(0.8)	(1.8)	(1.6)		(0.9)	(1.8)	(1.3)
중	21	27	21	17	33	4	74	49	123
	(9.2)	(10.5)	(5.3)	(9.9)	(11.6)	(6.1)	(8.6)	(9.0)	(8.8)
중	141	141	247	99	156	36	471	349	820
	(61.6)	(54.9)	(62.2)	(57.9)	(54.7)	(54.5)	(54.6)	(64.4)	(58.4)
중	49	52	79	42	55	18	203	92	295
	(21.4)	(20.2)	(19.9)	(24.6)	(19.3)	(27.3)	(23.5)	(17.0)	(21.0)
하	14	34	47	10	36	8	107	42	149
	(6.1)	(13.2)	(11.8)	(5.8)	(3.0)	(12.1)	(12.4)	(7.7)	(10.6)
계	229	257	397	171	285	66	863	542	1,405

학생들의 가정 생활정도를 중간정도로 볼 때(58.4%), 상 정도가 약 10%, 하 정도가 31.6%를 차지하고 있어서 가정의 어려운 상태를 입증해 주고 있으며 대학별로 볼 때

사범대학과 야간강좌부가, 남녀별로 볼 때 여자보다 남자가 생활정도가 중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表 I-7〉 출신고교 소재지 (%)

항 목 별	대 학 별						성 별		계
	인 문	사회과학	사 범	농 과	해양과학	야간강좌	남	여	
계 주 도	225 (98.7)	250 (97.3)	384 (96.7)	162 (94.7)	268 (94.0)	64 (97.0)	818 (94.8)	535 (98.7)	1,353 (96.3)
서 울	2 (0.9)	2 (0.8)	2 (0.5)	1 (0.6)	1 (0.4)	-	6 (0.7)	2 (0.4)	8 (0.6)
부 산	-	-	-	1 (0.6)	2 (0.7)	-	3 (0.3)	-	3 (0.2)
강 원 도	-	-	-	-	2 (0.7)	-	2 (0.2)	-	2 (0.1)
충 청 북 도	-	-	1 (0.3)	-	-	-	1 (0.1)	-	1 (0.1)
충 청 남 도	-	-	3 (0.8)	1 (0.6)	2 (0.7)	-	6 (0.7)	-	6 (0.4)
경 상 북 도	-	-	-	1 (0.6)	3 (1.1)	-	4 (0.5)	-	4 (0.3)
경 상 남 도	-	-	3 (0.8)	-	1 (0.4)	-	3 (0.3)	1 (0.2)	4 (0.3)
전 라 북 도	-	-	-	2 (1.2)	1 (0.4)	-	2 (0.2)	1 (0.2)	3 (0.2)
전 라 남 도	2 (0.9)	5 (1.9)	4 (1.0)	3 (1.8)	5 (1.6)	2 (3.0)	18 (2.1)	3 (0.6)	21 (1.5)
계	229	257	397	171	285	66	863	542	1,405

〈表 I-7〉은 출신고등학교 별로 소재지를 파악하여 본 것인데 〈表 I-2〉에서 밝힌 바 있거니와 96.3%가 본도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이고 나머지가 타도 고등학교 출신으로서 그 중에서도 전라남도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이 많으며 그 외 타지역은 10명 미만 정도이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들이 거의가 본도 고등학교 출신임을 볼 수 있다.(98.7%)

신입생들의 출신고등학교의 계열별 상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중 76.7%인 1,078명이 인문

〈表 I-8〉 출신고교의 계열 (%)

항 목 별	대 학 별						성 별		계
	인 문	사회과학	사 범	농 과	해양과학	야간강좌	남	여	
인 문 계	211 (92.1)	191 (74.3)	363 (91.4)	114 (65.7)	177 (62.1)	22 (33.3)	601 (69.6)	477 (88.0)	1,078 (76.7)
실 업 계	18 (7.9)	66 (25.7)	34 (8.6)	57 (33.3)	108 (37.9)	44 (66.7)	262 (30.4)	65 (12.0)	327 (23.3)
계	229	257	397	171	285	66	863	542	1,405

<表 I-9>

재 수 경 험

(%)

항 목 별	대 학 부						고 령		계
	인 문	사회과학	사 범	농 과	해양과학	야간강좌	남	여	
있 음	33 (14.4)	42 (16.3)	31 (7.8)	24 (14.0)	63 (22.1)	35 (53.0)	179 (20.7)	49 (9.0)	228 (16.2)
없 음	196 (85.6)	215 (33.7)	366 (92.2)	147 (86.0)	222 (77.9)	31 (47.0)	684 (79.3)	493 (91.0)	1,177 (93.8)
계	229	257	397	171	285	66	863	542	1,405

<表 I-10>

시 력

(%)

대 학 별	대 학 부						성 별		계	
	인 문	사회과학	사 범	농 과	해양과학	야간강좌	남	여		
2.0	R	2 (0.9)	2 (0.8)	6 (1.5)	-	4 (1.4)	14 (21.2)	25 (2.9)	3 (0.6)	28 (2.0)
	L	1 (0.4)	2 (0.8)	9 (2.3)	-	5 (1.8)	13 (19.7)	26 (3.0)	4 (0.7)	30 (2.1)
1.5	R	35 (15.3)	47 (18.3)	76 (19.1)	43 (25.1)	72 (25.3)	17 (25.8)	210 (24.3)	80 (14.8)	290 (20.6)
	L	30 (13.1)	41 (16.0)	75 (18.9)	35 (20.5)	66 (23.2)	13 (19.7)	194 (22.5)	66 (12.2)	260 (18.5)
1.2	R	53 (23.1)	70 (27.2)	110 (27.7)	50 (29.2)	95 (33.3)	16 (24.2)	268 (31.1)	126 (23.2)	394 (28.0)
	L	43 (18.8)	73 (28.4)	86 (21.7)	58 (33.9)	99 (34.7)	22 (33.3)	266 (30.8)	115 (21.2)	381 (27.1)
1.0	R	39 (17.0)	52 (20.2)	70 (17.6)	32 (18.7)	51 (17.9)	5 (7.6)	148 (17.1)	101 (18.6)	249 (17.7)
	L	50 (21.8)	50 (19.5)	78 (19.4)	37 (21.4)	49 (17.2)	4 (6.1)	154 (17.8)	114 (21.0)	268 (19.1)
0.9	R	11 (4.8)	12 (4.7)	27 (6.8)	12 (7.0)	7 (2.5)	2 (3.0)	34 (3.9)	37 (6.8)	71 (5.1)
	L	17 (7.4)	19 (7.4)	33 (8.3)	10 (5.8)	10 (3.5)	1 (1.5)	48 (5.6)	42 (7.7)	90 (6.4)
0.8	R	13 (5.7)	10 (3.9)	28 (7.1)	10 (5.8)	13 (4.4)	1 (1.5)	31 (3.4)	44 (8.1)	75 (5.3)
	L	8 (3.5)	9 (3.5)	31 (7.8)	6 (3.5)	13 (4.4)	1 (1.5)	31 (3.6)	37 (4.8)	68 (4.8)
0.7	R	16 (7.0)	10 (3.9)	20 (5.0)	5 (2.9)	8 (2.8)	2 (3.0)	29 (3.4)	32 (5.9)	61 (4.3)
	L	17 (7.4)	8 (3.1)	19 (4.8)	8 (4.7)	10 (3.5)	2 (3.0)	30 (3.5)	34 (6.3)	64 (4.6)
0.6	R	12 (5.2)	2 (0.8)	10 (2.5)	4 (2.3)	9 (3.2)	1 (1.5)	10 (1.2)	28 (5.2)	38 (2.7)
	L	10 (4.4)	4 (1.6)	10 (2.5)	1 (3.0)	7 (2.5)	-	11 (1.3)	21 (3.9)	32 (2.3)
0.5	R	13 (5.7)	5 (1.9)	17 (4.3)	7 (4.1)	9 (3.2)	3 (4.5)	24 (2.8)	30 (5.5)	54 (3.8)
	L	14 (6.1)	7 (2.7)	15 (3.8)	4 (2.3)	12 (4.2)	2 (3.0)	23 (2.7)	31 (5.7)	54 (3.8)
0.4	R	35 (15.3)	47 (18.3)	33 (8.3)	8 (4.7)	17 (6.0)	5 (7.6)	84 (9.7)	61 (11.3)	145 (10.3)
	L	39 (17.0)	44 (17.1)	41 (10.3)	11 (6.4)	15 (5.3)	8 (12.1)	80 (9.3)	78 (14.4)	158 (11.2)
계	229	257	397	171	285	66	863	542	1,405	

제 고등학교 출신자이며 나머지 327명이 실업계 출신 학생이다. 대학별로 보면 야간 강좌부가 약 70%가 실업계고등학교 출신자이며 인문대학과 사범대학은 90% 이상이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자로서 대조를 보이고 있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인문계가 많다.

〈表 I-9〉는 신입생들의 재수경험 여부를 파악해 본 것인데 야간강좌가 53%를 차지하고 있어서 재수경험이 많음을 볼 수 있으며 다음으로 해양과학대학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학생보다 (9%) 남학생이 재수경험이 많음을 알 수 있다. (20.7%) 그리고 재수경험이 가장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은 사범대학으로서 대상자 367명 중 31명인 7.8%가 재수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I-10〉은 신입생들의 신체상태 중 시력정도를 조사·파악하여 본 것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상자 1,405명 중에서 오른쪽 시력이 0.9 이하의 시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3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왼쪽이 33.1%이다. 특히 0.4 이하의 시력을 가진 학생이 전체 학생의 10%정도 되고 있어서 시력이 나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대학별로 보면 인문대학과 사회과학 대학의 신입생들이 시력이 나쁜 편이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훨씬 시력이 좋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表 I-11〉 안 경 착용 (%)

항 목 별	대 학 별						성 별		계
	인 문	사회과학	사 범	농 과	해양과학	야간강좌	남	여	
유	73 (31.9)	67 (26.1)	118 (29.7)	39 (22.8)	53 (18.6)	8 (12.1)	167 (19.4)	191 (35.2)	358 (25.5)
무	154 (68.1)	190 (73.9)	279 (70.3)	132 (77.2)	232 (81.4)	58 (87.9)	696 (80.6)	351 (64.8)	1,047 (74.5)
계	229	257	397	171	285	66	843	542	1,405

따라서 안경 착용 상태를 파악하여 본 바로는 전체 대상학생 1,405명 중 358명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으며 (25.5%), 인문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순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학생이 많고 여학생의 35.2%나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

〈表 I-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대학 신입생들의 잠정 평균신장치는 165~169cm이며 170cm 이상의 신장치를 보이는 학생이 3%나 된다. 165cm 이상의 크기의 순으로 신장형태를 보이는 대학을 나열해 보면 각 대학의 대상자 중 해양과학대학이 69.0%, 야간강좌부가 68.2%, 사회과학대학이 63.8%, 그리고 농과대학이 63.7% 순이며 사범대학이 평균신장치에서 작은 편이나 이는 여학생들의 비중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表 I-12>

신 장

(%)

항 목 별	대 학 별						성 별		계
	인 문	사회과학	사 범	농 과	해양과학	야간강좌	남	여	
180cm 이상	1 (0.4)	—	9 (2.3)	1 (0.5)	3 (1.3)	—	14 (1.6)	—	14 (1.0)
175~179	17 (7.4)	25 (9.7)	24 (6.0)	13 (7.4)	32 (11.2)	7 (10.4)	117 (13.6)	1 (0.2)	118 (8.4)
170~174	24 (10.5)	72 (28.0)	49 (12.3)	42 (24.6)	80 (28.1)	21 (31.8)	287 (33.3)	1 (0.2)	298 (20.5)
165~169	32 (14.0)	47 (24.1)	75 (18.9)	53 (31.0)	81 (28.4)	17 (25.8)	287 (33.3)	38 (7.0)	325 (23.1)
160~164	58 (25.3)	52 (20.2)	103 (25.4)	34 (19.9)	50 (17.5)	13 (19.7)	135 (15.6)	173 (31.9)	308 (21.9)
155~159	63 (27.5)	31 (12.7)	86 (21.7)	22 (12.9)	30 (10.5)	6 (9.1)	19 (2.2)	219 (40.4)	238 (16.9)
150~154	34 (14.8)	10 (3.9)	52 (13.1)	6 (3.5)	9 (3.2)	2 (3.0)	4 (0.5)	109 (20.1)	113 (8.0)
145~149	—	—	1 (0.3)	—	—	—	—	1 (0.2)	1 (0.1)
계	229	257	397	171	285	66	863	542	1,495

<表 I-13>

체 중

(%)

항 목 별	대 학 별						성 별		계
	인 문	사회과학	사 범	농 과	해양과학	야간강좌	남	여	
80kg 이상	—	—	2 (0.5)	—	—	—	2 (0.2)	—	2 (0.1)
75~79	1 (0.4)	1 (0.4)	4 (1.0)	—	—	1 (1.5)	7 (0.8)	—	7 (0.5)
70~74	5 (2.2)	4 (1.6)	11 (2.8)	3 (1.8)	9 (3.2)	1 (1.5)	33 (3.8)	—	33 (2.3)
65~69	9 (3.9)	18 (7.0)	26 (6.5)	13 (7.6)	21 (7.4)	7 (10.6)	92 (10.7)	2 (0.4)	94 (6.7)
60~64	29 (12.7)	60 (23.3)	48 (12.1)	38 (22.2)	77 (27.0)	15 (22.7)	250 (29.0)	17 (3.1)	267 (19.0)
55~59	42 (18.3)	76 (29.6)	76 (19.1)	50 (29.2)	82 (28.8)	25 (37.9)	280 (32.4)	71 (13.1)	351 (25.0)
50~54	73 (31.9)	69 (26.8)	120 (30.2)	49 (28.7)	64 (22.5)	7 (10.6)	175 (20.3)	207 (38.2)	382 (27.2)
45~49	60 (26.2)	25 (9.7)	92 (23.2)	15 (8.8)	27 (9.5)	9 (13.6)	21 (2.4)	207 (38.2)	228 (16.2)
44kg 이하	10 (4.4)	4 (1.6)	18 (4.5)	3 (1.8)	5 (1.8)	1 (1.5)	3 (0.3)	38 (7.0)	41 (2.9)
계	229	257	397	171	285	66	863	542	1,405

<表 I-13>은 신입생들의 신체상태 중 체중을 조사한 것인데 70kg 이상이 되는 학생이 전체 대상자 중 40명으로서 약 3%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면에 50kg 이하가 되는 학생은

260명으로 약 19%나 되어 신장의 형태면에서 보면 상의 체중보다 하위 체중이 많은 편이다.

〈表 I-14〉 흉 위 (%)

항 목 별	대 학 별						성 별		계
	인 문	사회과학	사 범	농 과	해양학과	야간강좌	남	여	
99cm이상	7 (3.1)	12 (4.7)	18 (4.5)	2 (1.2)	11 (3.9)	4 (6.1)	54 (6.3)	—	54 (3.8)
96~98	10 (4.4)	17 (6.6)	15 (3.8)	10 (5.8)	10 (3.5)	5 (7.6)	67 (7.8)	—	67 (4.8)
93~95	18 (7.9)	15 (5.8)	15 (3.8)	15 (8.8)	27 (9.5)	4 (6.1)	94 (10.9)	—	94 (6.7)
90~92	36 (15.7)	65 (25.3)	45 (11.3)	45 (26.3)	76 (26.7)	20 (30.3)	262 (30.4)	25 (4.6)	287 (20.4)
87~89	20 (8.7)	35 (13.6)	46 (11.6)	37 (21.6)	53 (18.6)	8 (12.1)	156 (18.1)	43 (7.9)	199 (14.2)
84~86	48 (21.0)	56 (21.8)	80 (20.2)	26 (15.2)	46 (16.1)	15 (22.7)	129 (14.9)	142 (26.2)	271 (19.3)
81~83	38 (16.6)	37 (14.4)	79 (19.9)	23 (13.5)	36 (12.6)	4 (6.1)	59 (6.8)	158 (29.2)	217 (15.4)
78~80	45 (19.7)	15 (5.8)	73 (18.4)	12 (7.0)	22 (7.7)	6 (9.1)	39 (4.5)	134 (24.7)	173 (12.3)
77cm이하	7 (3.1)	5 (1.9)	26 (6.5)	1 (0.5)	4 (1.4)	—	3 (0.3)	40 (7.4)	43 (3.1)
계	229	257	397	171	285	66	863	542	1,405

〈表 I-14〉는 또한 신체상태 중 흉위의 정도를 파악한 것으로서 93cm 이상의 학생이 215명으로서 15.3%를 차지하고 있으며 81cm 이하가 되는 학생이 433명으로 30.8%를 차지하고 있다.

〈表 I-15〉 본인의 건강상태 (%)

항 목 별	대 학 별						성 별		계
	인 문	사회과학	사 범	농 과	해양학과	야간강좌	남	여	
아 주 건 강	58 (25.3)	68 (26.5)	107 (27.0)	42 (24.6)	75 (26.3)	15 (22.7)	194 (22.5)	171 (31.5)	365 (26.4)
비교적 건 강	157 (68.6)	172 (66.9)	276 (69.5)	117 (68.4)	191 (67.0)	49 (74.2)	593 (68.7)	359 (66.2)	952 (67.8)
허 약	8 (3.5)	15 (5.8)	12 (3.0)	11 (6.4)	16 (5.6)	2 (3.0)	55 (6.4)	9 (1.7)	64 (4.6)
외 (질환으로)	6 (2.6)	2 (0.8)	2 (0.5)	1 (0.5)	3 (1.1)	—	3 (0.3)	14 (2.6)	17 (1.2)
계	229	257	397	171	285	66	863	542	1,405

〈表Ⅱ-1〉

입 학 동 기

(%)

항 목 별	대 학						성 별		계
	인 문	사회학과	사 범	농 과	해양학과	야간강좌	남	여	
등록금 외출 부담 해소	23 (10.0)	24 (9.3)	83 (20.9)	10 (5.8)	19 (6.6)	5 (7.6)	97 (11.2)	57 (12.4)	164 (11.7)
종합대 승격	16 (7.0)	9 (3.5)	23 (5.8)	17 (9.9)	22 (7.7)	4 (6.1)	67 (7.8)	24 (4.4)	91 (6.5)
입 학 용 이	52 (22.7)	67 (26.1)	54 (13.6)	39 (22.8)	76 (26.7)	12 (18.2)	189 (21.9)	111 (20.5)	300 (21.4)
국립 대학	16 (7.0)	21 (8.2)	63 (15.9)	22 (12.9)	27 (9.5)	10 (15.2)	98 (11.4)	61 (11.3)	159 (11.3)
생활 활 비 부담 해소	52 (22.7)	69 (26.8)	107 (27.0)	31 (18.1)	50 (17.5)	12 (18.2)	190 (22.0)	131 (24.2)	321 (22.8)
기 타	70 (30.6)	67 (26.1)	67 (16.9)	52 (30.4)	91 (31.9)	23 (34.8)	222 (25.7)	148 (27.3)	370 (26.3)
계	229	257	397	171	285	66	863	542	1,405

〈表Ⅱ-2〉

본교 지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

항 목 별	대 학						성 별		계
	인 문	사회과학	사 범	농 과	해양과학	야간강좌	남	여	
가 족	94 (41.0)	96 (37.4)	180 (45.3)	52 (30.4)	88 (30.9)	10 (15.2)	256 (29.7)	264 (48.7)	520 (37.0)
모 교 교 사	19 (8.3)	9 (3.5)	24 (6.0)	18 (10.5)	23 (8.1)	1 (1.5)	71 (8.2)	23 (4.2)	94 (6.7)
선 배	5 (2.2)	3 (1.2)	12 (3.0)	6 (3.5)	7 (2.5)	1 (1.5)	22 (2.5)	12 (2.2)	34 (2.4)
친 구	3 (1.3)	1 (0.4)	6 (1.5)	—	7 (2.5)	4 (6.1)	13 (1.5)	8 (1.5)	21 (1.5)
친 척, 친 지	8 (3.5)	11 (4.3)	10 (2.5)	7 (4.1)	8 (2.8)	2 (3.0)	34 (3.9)	12 (2.2)	46 (3.3)
자 기 자 신	89 (38.9)	127 (49.4)	144 (36.3)	79 (46.2)	134 (47.0)	48 (72.7)	421 (48.8)	200 (36.9)	621 (44.2)
기 타	11 (4.8)	10 (3.9)	21 (5.3)	9 (5.3)	18 (6.3)	—	46 (5.3)	23 (4.2)	69 (4.9)
계	229	257	397	171	285	66	863	542	1,405

본교를 지망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에 대하여 알아본 바에 의하면 〈表Ⅱ-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인 자신에 의해 결정된 것이 44.2%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가족들의 권유에 의해서가 전체 1,405명 중 520명으로 37.0%를 차지하고 있어서 자신의 문제를 자신과 가족구성원에 의해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사실을 볼 수 있다. 대학별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인문대학과 사범대학이 가족에 의한 영향력을 많이 받았으며 사회과학대학과 농과대학 및 해양과학대학이 본인 자신에

의한 결정이 주효하며 특히 야간강좌부는 본인 자신에 의한 결정이 72.7%나 되어 사회적 경험이 자신의 행동 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表Ⅱ-3〉 고교시 희망했던 학교 및 계열(학과)과의 일치여부 (%)

항 목 별	대 학						성 별		계
	인 문	사회과학	사 범	농 과	해양과학	야간강좌	남	여	
모 두 일 치	60 (26.2)	82 (31.9)	106 (26.7)	49 (28.7)	53 (18.6)	32 (48.5)	259 (50.0)	123 (22.7)	382 (27.2)
학교는 일치 하나 전공계 열은 불 일치	41 (17.9)	47 (18.3)	40 (10.1)	52 (30.4)	63 (22.1)	14 (21.2)	152 (17.6)	105 (19.4)	257 (18.3)
전공 계열은 일치하나 학 교는 불 일치	73 (31.9)	63 (24.5)	133 (33.5)	23 (13.5)	69 (24.2)	6 (9.1)	210 (24.3)	157 (29.0)	367 (26.1)
모두 불 일치	55 (24.0)	65 (25.3)	118 (29.7)	47 (27.5)	100 (35.1)	14 (21.2)	242 (28.0)	157 (29.0)	399 (28.4)
계	229	257	397	171	285	66	863	542	1,405

〈表Ⅱ-3〉은 고등학교 때 희망했던 학교와 계열(학과)의 일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인데 모두 일치한다가 27.2%, 학교는 일치하나 전공계열(학과)은 불일치하는 것이

〈表Ⅱ-4〉 전공계열(학과)을 선택이유 (%)

항 목 별	대 학						성 별		계
	인 문	사회과학	사 범	농 과	해양과학	야간강좌	남	여	
적성과 흥미	135 (59.0)	135 (52.5)	231 (58.2)	59 (34.5)	98 (34.4)	23 (34.8)	405 (46.9)	276 (50.9)	681 (48.5)
가 정 환 경	7 (3.1)	3 (1.2)	25 (6.3)	9 (5.3)	6 (2.1)	4 (6.1)	32 (3.7)	22 (4.1)	54 (3.8)
직업적 전망	26 (11.4)	61 (23.7)	64 (16.1)	15 (8.8)	45 (15.8)	22 (33.3)	143 (16.6)	90 (16.6)	233 (16.6)
미 개 척 분야의 학문	7 (3.1)	6 (2.3)	6 (1.5)	20 (11.7)	53 (18.6)	-	74 (8.6)	18 (3.3)	92 (6.5)
타인의 권유	9 (3.9)	7 (2.7)	14 (3.5)	7 (4.1)	8 (2.8)	1 (1.5)	22 (2.5)	24 (4.4)	46 (3.3)
경제적 안정	-	3 (1.2)	11 (2.8)	2 (1.2)	1 (0.4)	1 (1.5)	11 (1.3)	7 (1.3)	18 (1.3)
사 명 감	13 (5.7)	16 (6.2)	27 (6.8)	9 (5.3)	6 (2.1)	5 (7.6)	55 (6.4)	21 (3.9)	76 (5.4)
인기도가 높음	1 (0.4)	4 (1.6)	4 (1.0)	-	-	-	7 (0.8)	2 (0.4)	9 (0.6)
합격의 용이성	14 (6.1)	10 (3.9)	6 (1.5)	32 (18.7)	50 (17.5)	-	67 (7.8)	45 (8.3)	112 (8.0)
기 타	17 (7.4)	12 (4.7)	9 (2.3)	18 (10.5)	19 (6.3)	10 (15.2)	47 (5.4)	37 (6.8)	84 (6.0)
계	229	257	397	171	285	66	863	542	1,405

18.3%, 전공계열은 일치하나 학교는 불일치하는 것이 26.1%, 모두 불일치하는 것이 28.4%로 전체적으로 볼 때 전공계열의 불일치와 학교 및 전공계열의 불일치한 학생들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문제점의 여지가 있으리나 판단된다. 남학생들이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농과대학이 57.9%, 해양과학대학이 57.2%로 각 대학 중에서 가장 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공계열(학과)을 선택한 이유로는 적성과 흥미에 따른 선택이 48.5%로 가장 많고 다음이 직업적 전망에 의한 선택(16.6%), 그 다음이 합격의 용이성(8.0%)을 들고 있는데 타인의 권유에 의한 선택(3.3%)과 인기도에 따른 선택(0.6%)은 4년 동안의 대학생활을 영위하는데 문제점으로 등장할 것이다. 남여별 분포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表Ⅱ-5〉 전공계열(학과)에 대한만족도 (%)

항 목 별	대 학 별						성 별		계
	인 문	사회과학	사 범	농 과	해양과학	야간강좌	남	여	
아 주 만 족	48 (21.0)	68 (26.5)	100 (25.2)	27 (15.8)	33 (11.6)	21 (31.8)	198 (22.9)	99 (18.3)	297 (21.1)
다 소 만 족	118 (51.5)	141 (54.9)	203 (51.1)	64 (37.4)	127 (44.6)	34 (51.5)	412 (47.7)	275 (50.7)	637 (48.9)
그저 그렇다	41 (17.9)	35 (13.6)	70 (17.6)	51 (29.8)	78 (27.4)	9 (13.6)	179 (20.7)	105 (19.4)	284 (20.2)
다 소 불 만	18 (7.9)	9 (3.5)	14 (3.5)	22 (12.9)	25 (8.8)	2 (3.0)	48 (5.6)	42 (7.7)	90 (6.4)
아 주 불 만	4 (1.7)	4 (1.6)	10 (2.5)	7 (4.1)	22 (7.7)	-	26 (3.0)	21 (3.9)	44 (3.1)
계	229	257	397	171	285	66	863	542	1,405

입학한 전공계열(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表Ⅱ-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족의 정도가 70.0%로 대상자 전체 학생의 2/3가 만족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보통이 20.2%, 그리고 불만족한 반응이 9.5%를 나타내고 있어서 대부분 전공계열(학과) 선택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거나 약 10% 정도의 불만족한 학생들의 적응에 문제점이 예상된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만족의 반응을 보이는 대학이 야간 강좌부로서 83.3%이며 가장 불만족의 반응을 보이는 대학이 농과대학으로서 17.0%이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전공계열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공계열(학과)에 대한 불만의 이유로서는 적성·흥미에 맞지 않음(24.0%) 또한 1차 지망학과가 아니므로(19.7%), 또한 장래전망이 흐리기 때문(14.0%)인 것으로 불만이 유를 들고 있다.

〈表Ⅱ-6〉

불만 이유

(%)

항 목 별	대 학 별						성 별		계
	인 문	사회과학	사 범	농 과	해양과학	야간강좌	남	여	
1차 지망학과가 아님	14 (22.2)	11 (22.9)	12 (12.8)	13 (22.5)	24 (19.2)	4 (36.4)	46 (18.2)	37 (22.0)	83 (19.7)
적성, 흥미에 맞지 않음	8 (12.7)	13 (27.1)	28 (29.8)	23 (28.8)	27 (21.6)	2 (18.2)	61 (25.3)	37 (22.0)	101 (24.0)
능 력 에 맞지 않음	6 (9.5)	3 (6.3)	16 (17.0)	3 (3.8)	10 (8.0)	1 (9.0)	22 (8.7)	17 (10.1)	39 (9.3)
장래 전망이 흐림	16 (25.4)	6 (12.5)	10 (10.6)	11 (13.8)	16 (12.8)	-	26 (10.3)	33 (19.6)	59 (14.0)
실용성이 없음	3 (4.8)	4 (8.3)	-	2 (2.5)	9 (7.2)	-	14 (5.5)	4 (2.4)	18 (4.3)
기 타	16 (25.4)	11 (22.9)	28 (29.8)	23 (23.8)	39 (31.2)	4 (36.4)	81 (32.0)	40 (23.8)	121 (23.7)
계	63	48	94	80	125	11	253	168	421

〈表Ⅱ-7〉

전과나 편입학 희망여부

(%)

항 목 별	대 학 별						성 별		계
	인 문	사회과학	사 범	농 과	해양과학	야간강좌	남	여	
하 겠 다	37 (16.2)	30 (11.7)	60 (15.1)	45 (26.3)	81 (28.4)	13 (19.7)	157 (18.2)	107 (20.1)	266 (18.9)
안 하 겠 다	101 (44.1)	135 (52.5)	233 (58.7)	69 (40.4)	94 (33.0)	32 (48.5)	401 (46.5)	263 (48.5)	664 (47.3)
두고 봐야겠다	91 (39.7)	92 (35.8)	104 (26.2)	57 (33.3)	110 (38.6)	21 (31.8)	305 (35.3)	170 (31.4)	475 (33.8)
계	229	257	397	171	285	66	863	542	1,405

〈表Ⅱ-7〉은 만약 앞으로 학과를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과나 편입학의 희망 여부를 알아본 것인데 희망하는 학생이 18.9%나 되며 앞으로 기회와 여건에 따라 고려

〈表Ⅱ-8〉

전공계열(학과)에 대한 이해정도

(%)

항 목 별	대 학 별						성 별		계
	인 문	사회과학	사 범	농 과	해양과학	야간강좌	남	여	
잘 알고 지망	33 (14.4)	29 (11.3)	50 (12.6)	21 (12.3)	44 (15.3)	12 (18.2)	139 (16.1)	50 (9.2)	189 (13.5)
대강 알고 지망	179 (78.2)	194 (75.5)	296 (74.6)	107 (62.6)	189 (66.3)	44 (66.7)	616 (71.4)	393 (72.5)	1,009 (71.3)
잘 모르코 지망	13 (5.7)	28 (10.9)	44 (11.1)	26 (15.2)	41 (14.4)	6 (9.1)	76 (8.8)	82 (15.1)	153 (13.5)
전혀 모르코 지망	4 (1.7)	6 (2.3)	7 (1.8)	17 (9.9)	11 (3.9)	4 (6.1)	32 (3.7)	17 (3.1)	49 (3.5)
계	229	257	397	171	285	66	863	542	1,405

하겠다는 유동적인 학생이 33.8%나 되어 앞의 <表Ⅱ-5>에서 전공계열(학과)의 만족도에
서 나타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욕구지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대학별로는 농과대학과 해양과학대학의 학생들이 전과나 편입

<表Ⅱ-9> 학생들이 당면 또는 예상되는 중요문제 (%)

항 목 별	대 학 별						성 별		계	
	인 문	사회과학	사 범	농 과	해양과학	야간장과	남	여		
전 강	○	18 (7.9)	24 (9.3)	44 (11.1)	19 (11.1)	25 (8.8)	15 (22.7)	109 (12.6)	36 (6.6)	145 (10.3)
	△	8 (3.5)	16 (6.2)	30 (7.6)	3 (1.8)	19 (6.7)	4 (6.1)	50 (5.8)	30 (5.5)	80 (5.7)
경 계	○	45 (19.7)	69 (26.8)	99 (24.9)	34 (19.9)	91 (31.9)	20 (30.3)	245 (28.4)	113 (20.8)	358 (25.5)
	△	25 (10.9)	25 (9.7)	45 (11.3)	22 (12.9)	38 (13.3)	5 (7.6)	97 (11.2)	63 (11.6)	160 (11.4)
사 회 적 적 용	○	32 (14.0)	35 (13.6)	71 (17.9)	7 (4.1)	32 (11.2)	6 (9.1)	83 (9.6)	100 (18.5)	183 (13.0)
	△	49 (21.4)	17 (6.6)	65 (16.4)	18 (10.5)	36 (12.6)	8 (12.1)	90 (10.4)	103 (19.0)	193 (13.7)
성 격	○	16 (7.0)	16 (6.2)	33 (8.3)	14 (8.2)	15 (5.3)	3 (4.5)	52 (6.0)	45 (8.3)	97 (6.9)
	△	13 (5.7)	12 (4.7)	17 (4.3)	6 (3.5)	8 (2.8)	1 (1.5)	32 (3.7)	25 (4.6)	57 (4.1)
이성교제	○	3 (1.3)	6 (2.3)	8 (2.0)	3 (1.8)	8 (2.8)	1 (1.5)	21 (2.4)	8 (1.5)	29 (2.1)
	△	8 (3.5)	25 (9.7)	32 (8.1)	7 (4.1)	11 (3.9)	2 (3.0)	56 (6.5)	29 (5.4)	85 (6.0)
중 도 도 표	○	3 (1.3)	-	7 (1.8)	9 (5.3)	3 (1.1)	2 (3.0)	11 (1.3)	13 (2.4)	24 (1.7)
	△	9 (3.9)	3 (1.2)	10 (2.5)	6 (3.5)	1 (0.4)	1 (1.5)	14 (1.6)	16 (3.0)	30 (2.1)
학 습	○	72 (31.4)	56 (21.8)	86 (21.7)	44 (25.7)	61 (21.4)	9 (13.6)	172 (20.0)	156 (28.8)	328 (23.3)
	△	29 (12.7)	48 (18.7)	65 (16.4)	32 (18.7)	53 (18.6)	12 (18.2)	139 (16.1)	100 (18.5)	239 (17.0)
진 보	○	24 (10.5)	31 (12.1)	32 (8.1)	24 (14.0)	17 (6.0)	7 (10.6)	79 (9.2)	56 (10.3)	135 (9.6)
	△	74 (32.3)	66 (25.7)	90 (22.7)	51 (29.8)	76 (26.7)	20 (30.3)	214 (24.8)	163 (30.1)	377 (26.8)
병 역	○	8 (3.5)	10 (3.9)	4 (1.0)	7 (4.1)	19 (6.7)	2 (3.0)	50 (5.8)	-	50 (3.6)
	△	6 (2.6)	35 (13.6)	23 (5.8)	15 (8.8)	29 (10.2)	5 (7.6)	112 (13.0)	1 (0.2)	113 (8.0)
숙 소	○	3 (1.3)	1 (0.4)	5 (1.3)	3 (1.8)	4 (1.4)	-	11 (1.3)	5 (0.9)	16 (1.1)
	△	2 (0.9)	1 (0.4)	8 (2.0)	1 (0.6)	6 (2.1)	-	18 (2.1)	-	18 (1.3)
가 정	○	5 (2.2)	9 (3.5)	8 (2.0)	7 (4.1)	10 (3.5)	1 (1.5)	30 (3.5)	10 (1.8)	40 (2.8)
	△	6 (2.6)	9 (3.5)	12 (3.0)	10 (5.8)	8 (2.8)	8 (12.1)	41 (4.8)	12 (2.2)	53 (3.8)
계		229	257	397	171	285	66	863	542	1,405

○ 표는 당면문제 △ 표는 예상되는 문제

학에 많은 희망의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남학생과 여학생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

학생자신이 선택·입학한 전공계열 또는 학과에 대한 이해 정도로서는 대강 알고 있을 뿐이며(71.8%), 이해 정도가 낮은 수준에서의 지망이 17.0%로서 이해도가 낮다. 이는 앞의 <表II-5>에서 적성과 흥미에 알맞게 전공계열을 선택한 학생이 48.3%라는 반응을 보인 바 있으나 학생 자신의 인성 특성에 확실한 이해도가 미흡하며 학과나 학문의 특성에 철저한 사전 이해가 없이 학문연구를 수행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表II-9>는 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또는 예상되는 중요 문제들을 파악한 것으로서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의 순으로 정리해 보면 ① 경제 ② 학업 ③ 사회적 믿음 ④ 건강 ⑤ 진로 ⑥ 성격 ⑦ 병역 ⑧ 가정 ⑨ 이성교제 ⑩ 종교·도덕 ⑪ 숙소 등의 순으로 문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예상되는 문제의 순으로는 ① 진로 ② 학업 ③ 사회적 적응 ④ 경제 ⑤ 병역 ⑥ 이성교제 ⑦ 건강 ⑧ 성격 ⑨ 가정 ⑩ 종교·도덕 ⑪ 숙소 등의 순으로 문제 경향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를 종합해서 중요 문제 5가지를 열거해 보면 ① 학업문제(40.3%) ② 경제생활(36.9%) ③ 진로문제(36.4%) ④ 사회적 적응(26.7%) ⑤ 건강문제(16.0%)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학생들의 중요 문제 3가지를 제기해 보면 경제문제가 39.6%로 으뜸이며 다음이 학업문제가 36.1%, 그 다음이 진로가 34.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들의 중요문제의 첫째가 학업문제로서 47.3%로 제일 많은 문제 경향을 보이며 다음이 진로문제가 40.4%, 그 다음이 사회적 적응문제로서 37.5

<表II-10> 개인문제 해결을 위한 의논 대상 (%)

항 목 별	학						성		계
	대	학	법	농	해	야	남	여	
	인	사	사	농	해	야	남	여	계
가	48	34	83	34	34	6	117	122	239
	(21.0)	(13.2)	(20.9)	(19.9)	(11.9)	(9.1)	(13.6)	(22.5)	(17.0)
친	3	2	8	2	3	3	17	4	21
	(1.3)	(0.8)	(2.0)	(1.2)	(1.1)	(4.5)	(2.0)	(0.7)	(1.5)
모	5	14	15	8	9	4	32	23	55
	(2.2)	(5.4)	(3.8)	(4.7)	(3.2)	(6.1)	(3.7)	(4.2)	(3.9)
지	46	50	81	43	73	25	223	95	318
	(20.1)	(19.5)	(20.4)	(25.1)	(25.6)	(37.9)	(25.8)	(17.5)	(22.6)
상	22	27	19	10	23	6	70	37	107
	(9.6)	(10.5)	(4.8)	(5.8)	(8.1)	(9.1)	(8.1)	(6.8)	(7.6)
친	57	83	113	44	79	15	230	161	391
	(24.9)	(32.3)	(28.5)	(25.7)	(27.7)	(22.7)	(26.7)	(29.7)	(27.9)
선	36	37	61	18	50	6	134	74	208
	(15.7)	(14.4)	(15.4)	(10.5)	(17.5)	(9.1)	(15.5)	(13.7)	(14.8)
기	12	10	17	12	14	1	40	26	66
	(5.2)	(3.9)	(4.3)	(7.0)	(4.9)	(1.5)	(4.6)	(4.8)	(4.7)
계	229	257	397	171	285	66	863	542	1,405

<表Ⅱ-12>

희망하는 씨클활동 분야

(%)

항 목 별	대 학						성 별		계
	인 문	사회과학	사 범	농 과	해양과학	야간강좌	남	여	
교 양	52 (22.7)	49 (19.1)	100 (25.2)	26 (15.2)	63 (22.1)	11 (16.7)	152 (17.6)	149 (27.5)	301 (21.4)
체 육	17 (7.4)	26 (10.1)	31 (7.8)	19 (11.1)	44 (15.4)	8 (12.1)	108 (12.5)	37 (6.8)	145 (10.3)
종 교	22 (9.6)	20 (8.6)	39 (9.8)	23 (13.5)	22 (7.7)	10 (15.2)	79 (9.2)	57 (10.5)	136 (9.7)
친 목, 오락	17 (7.4)	33 (12.8)	45 (11.3)	38 (22.2)	44 (15.4)	8 (12.1)	151 (17.5)	34 (6.3)	185 (13.2)
봉 사	35 (15.3)	42 (16.3)	50 (12.6)	30 (17.5)	41 (14.4)	6 (9.1)	109 (12.6)	95 (17.5)	204 (14.5)
예 술	36 (15.7)	19 (7.4)	61 (15.4)	15 (8.8)	26 (9.1)	7 (10.6)	82 (9.5)	82 (15.1)	164 (11.7)
학 문	41 (17.9)	58 (22.6)	59 (14.9)	16 (9.4)	26 (9.1)	14 (21.2)	142 (16.5)	72 (13.3)	214 (15.2)
기 타	9 (3.9)	10 (3.9)	12 (3.0)	4 (2.3)	19 (6.6)	2 (3.0)	40 (4.6)	16 (3.0)	56 (4.0)
계	229	257	397	171	285	66	863	542	1,405

반응을 보이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① 교양 ② 봉사 ③ 예술의 순으로 반응을 보여 남녀 학생간에 씨클활동의 참가분야가 매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表Ⅱ-13>

부 직 희망 여부

(%)

항 목 별	대 학						성 별		계
	인 문	사회과학	사 범	농 과	해양과학	야간강좌	남	여	
반드시 갖기를 희망한다	28 (12.2)	34 (13.2)	73 (18.4)	18 (10.5)	52 (18.2)	31 (47.0)	147 (17.0)	89 (16.4)	236 (16.8)
기회가 주어지면 갖겠다	160 (69.9)	159 (61.9)	261 (65.7)	105 (61.4)	187 (65.6)	19 (28.8)	514 (59.6)	377 (69.6)	891 (63.4)
두고 봐야겠다	32 (14.0)	40 (15.6)	50 (12.6)	35 (20.5)	38 (13.3)	8 (12.1)	140 (16.2)	63 (11.6)	203 (14.4)
희망하지 않는다	9 (3.9)	24 (9.3)	13 (3.3)	13 (7.6)	8 (2.8)	8 (12.1)	62 (7.2)	13 (2.4)	75 (5.3)
계	229	257	397	171	285	66	863	542	1,405

대학생활 기간동안에 부직 희망 여부를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表Ⅱ-13>참조) 반드시 부직을 갖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16.8%나 되며 기회가 주어지면 갖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63.4%나 되고 있다. 이는 전체 학생의 약 80% 학생이 부직을 희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희망정도가 높은 대학별로 정리하면 ① 사범대학 ② 해양과학대학 ③ 야간강좌 ④ 인문대학 ⑤ 사회과학대학 ⑥ 농과대학 순이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생의 76.6%,

여학생의 경우 68.0%가 부직을 희망하고 있어서 여학생이 부직희망에 더욱 절실성을 보여 주고 있다.

〈表Ⅱ-14〉 부직희망 이유 (%)

항 목 별	대 학 별						성 별		계
	인 문	사회과학	사 범	농 과	해양과학	야간강좌	남	여	
학비마련을 위해서	25 (11.4)	35 (15.0)	53 (13.8)	23 (14.6)	47 (17.0)	29 (50.0)	152 (19.0)	60 (11.3)	212 (15.9)
잡비 마련을 위해서	48 (21.8)	51 (21.9)	76 (19.8)	35 (22.2)	64 (23.1)	3 (5.2)	176 (22.0)	101 (19.1)	277 (20.8)
사회생활의 전문을 넓히기 위해서	96 (43.6)	75 (32.2)	165 (43.0)	52 (32.9)	73 (26.4)	14 (24.1)	239 (29.8)	236 (44.6)	475 (35.7)
여가를 활용키 위해서	9 (4.1)	10 (4.3)	14 (3.6)	6 (3.8)	14 (5.1)	—	34 (4.2)	19 (3.6)	53 (4.0)
직업생활에 대한 경험을 얻고자	12 (5.5)	27 (11.6)	24 (6.3)	10 (6.3)	25 (9.0)	4 (6.9)	69 (8.6)	33 (6.2)	102 (7.7)
자립 정신을 기르 기 위해	30 (13.6)	35 (15.0)	52 (13.5)	32 (20.3)	54 (19.5)	8 (13.8)	13 (16.4)	80 (15.1)	211 (15.9)
계	220	233	384	158	277	58	801	529	1,330

앞에서 파악했던 부직 희망 여부 파악에 이어 그 이유를 〈表Ⅱ-14〉에서와 같이 알아보았는데 사회생활의 전문을 넓히기 위한 부직 희망자가 1,330명의 35.7%인 475명이나 되어 1차적인 목적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잡비 마련을 위한 희망자가 20.8%, 학비 마련을 위해 부직을 희망하는 학생이 15.9%나 되고 있다. 특히 남학생들은 경제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해 부직 희망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학비마련 19.0%, 잡비마련 22.0%, 계 41.0%)

〈表Ⅱ-15〉 대학생활에 대한 계획수립 여부 (%)

항 목 별	대 학 별						성 별		계
	인 문	사회과학	사 범	농 과	해양과학	야간강좌	남	여	
뚜렷 하다	87 (38.0)	96 (37.4)	134 (33.8)	73 (42.7)	115 (40.4)	38 (57.6)	335 (38.8)	208 (39.4)	543 (38.6)
세울직장이다	126 (55.0)	149 (58.0)	232 (59.4)	83 (48.5)	153 (53.7)	27 (40.9)	474 (54.9)	296 (54.6)	770 (54.8)
세우지 못함	15 (6.6)	8 (3.1)	14 (3.5)	11 (6.4)	13 (4.6)	1 (1.5)	39 (4.5)	23 (4.2)	62 (4.4)
세우고 싶지 않다	1 (0.4)	4 (1.6)	17 (4.3)	4 (2.3)	4 (1.4)	—	15 (1.7)	15 (2.8)	30 (2.1)
계	229	257	397	171	285	66	863	542	1,405

앞으로의 대학생활 4년여 동안에 생활지침이 될 계획 수립 여부를 <表Ⅱ-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뚜렷하게 계획이 수립된 학생이 전체 학생 중 38.6%인 513명이고 앞으로 세울 계획인 학생이 54.8%로 나타났으며 대학별, 남녀별 계획수립 여부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表Ⅱ-16〉 대학졸업후의 계획 (%)

항 목 별	대 학 별						성 별		계
	인 문	사회과학	사 법	농 과	해양과학	야간강좌	남	여	
대학원에 입학	83 (38.4)	88 (34.2)	156 (39.3)	69 (40.4)	85 (29.8)	20 (30.3)	329 (38.1)	177 (32.7)	506 (36.0)
해 외 유 학	20 (8.7)	11 (4.3)	15 (3.8)	9 (5.3)	13 (4.6)	—	45 (5.2)	23 (4.2)	68 (4.8)
학 사 편 입	10 (4.4)	5 (1.9)	9 (2.3)	3 (1.8)	2 (0.7)	1 (1.5)	12 (1.4)	18 (3.3)	30 (2.1)
입 대	5 (2.2)	11 (4.3)	11 (2.8)	12 (7.0)	25 (8.8)	—	63 (7.3)	1 (0.1)	64 (4.6)
취 직 · 사 업	72 (31.4)	110 (42.8)	150 (37.8)	50 (29.2)	105 (36.8)	33 (50.0)	274 (31.7)	246 (45.4)	520 (37.0)
미 정	32 (14.0)	26 (10.1)	50 (12.6)	24 (14.0)	48 (16.8)	7 (10.6)	119 (13.8)	68 (12.5)	187 (13.3)
기 타	2 (0.9)	6 (2.3)	6 (1.5)	4 (2.3)	7 (2.5)	5 (7.6)	21 (2.4)	9 (1.7)	30 (2.1)
계	229	257	397	171	255	66	863	542	1,405

<表Ⅱ-16>은 대학졸업 후의 계획을 알아본 것인데 대학 졸업 후에 취직 또는 사업에 뜻을 두고 있는 학생이 37.0%, 대학원에 입학이 36.0%로 대학원 진학 희망에 많은 학생들이 뜻을 두고 있다. 이를 대학별로 살펴보면 인문대학이 대학원에 입학(38.4%)할 계획

〈表Ⅱ-17〉 이상적인 대학생활 (%)

항 목 별	대 학 별						성 별		계
	인 문	사회과학	사 법	농 과	해양과학	야간강좌	남	여	
학 문 연 구	79 (34.5)	91 (35.4)	113 (28.5)	69 (40.4)	74 (26.0)	32 (48.5)	327 (37.9)	131 (24.2)	458 (32.6)
인 격 도 야	125 (54.6)	130 (50.6)	246 (62.0)	80 (46.8)	163 (57.2)	23 (34.8)	390 (45.2)	377 (69.6)	767 (54.6)
직 업 준 비	8 (3.5)	23 (8.9)	12 (3.0)	15 (8.8)	25 (8.8)	31 (4.5)	74 (8.6)	12 (2.2)	86 (6.1)
사 회 봉 사	7 (3.1)	11 (4.3)	11 (2.8)	5 (2.9)	13 (4.6)	7 (10.6)	44 (5.1)	10 (1.8)	54 (3.8)
기 타	10 (4.4)	2 (0.8)	15 (3.8)	2 (1.2)	10 (3.5)	1 (1.5)	28 (3.2)	12 (2.2)	40 (2.8)
계	229	257	397	171	285	66	863	542	1,405

인 학생이 가장 많고 사회과학 대학은 취직 또는 사업(42.8%)을, 사범대학은 대학원 입학(39.3%)을, 농과대학 역시 대학원 입학 희망이 40.4%나 되어 모든 대학중 가장 높은 진학 희망율을 보이고 있으며 해양과학대학은 취직·사업(36.8%)을, 야간강좌 또한 취직·사업(50.0%)을 희망하고 있다. 남녀별로 볼 때 남학생이 신학에 많은 비중(38.1%)을 두고 있으며 여학생들은 취직에 약 50%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表Ⅱ-17〉은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에 대한 이상적인 생활 관점을 파악하여 본 것으로서 인격도야의 장으로서의 대학을 가장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54.6%), 학문연구기관으로서(32.6%), 직업준비의 터전으로서 6.1%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서 신입생들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대학생활상은 인격을 도야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열원하고 있다 하겠다.

〈表Ⅱ-18〉

(%)

항 목 별	대 학 별						성 별		계
	인 문	사회과학	사 범	농 과	해양과학	야간강좌	남	여	
원만한 대인 관계	51 (22.3)	58 (22.6)	85 (21.4)	33 (19.3)	56 (19.6)	17 (25.8)	182 (21.1)	118 (21.8)	300 (21.4)
인 격 완 성	69 (30.1)	67 (26.1)	126 (31.7)	49 (28.7)	84 (29.5)	13 (19.7)	235 (27.2)	173 (31.9)	408 (29.0)
학문적 지식 습득	51 (22.3)	44 (17.1)	58 (14.6)	35 (20.5)	54 (18.9)	17 (25.8)	182 (21.1)	77 (14.2)	259 (18.4)
장 래 직 업 준 비	18 (7.9)	35 (13.6)	23 (5.8)	11 (6.4)	33 (11.6)	8 (12.1)	108 (11.9)	25 (4.6)	128 (9.1)
폭넓은 교양 습득	39 (17.0)	50 (19.5)	99 (24.9)	38 (22.2)	54 (18.9)	11 (16.7)	147 (17.0)	144 (26.6)	291 (20.7)
기 타	1 (0.4)	3 (1.2)	6 (1.5)	5 (2.9)	4 (1.4)	-	14 (1.6)	5 (0.9)	19 (1.4)
계	229	257	397	171	285	66	863	542	1,405

학생 자신이 대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가장 중심적인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表Ⅱ-18〉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 29.0%로 가장 많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21.4%, 폭넓은 교양을 습득하는 것이 20.7%, 학문적 지식 습득이 18.4%로 앞에서 언급되었던 이상적인 대학생활상에 같은 목표를 두어 대학생활에 보람과 긍지를 갖 추기 위함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교수와 학생간의 인간관계는 전 대학생활을 통하여 대학생활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 요소 중 하나로서 학생이 교수에 대한 역할기대를 〈表Ⅱ-19〉에서 제시해 주고 있다. 학생들이 교수에게 바라는 가장 큰 역할기대는 교수와 학생간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일(51.2%)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다음이 전공분야에 대한 깊은 연구활동(18.4%)

〈表Ⅱ-19〉

교수에 대한 역할기대

(%)

항 목 별	대 학						성 별		계
	인 문	사회과학	사 법	농 과	해양과학	야간간과	남	여	
성실한 강의	40 (17.5)	45 (17.5)	54 (13.6)	20 (11.7)	35 (12.3)	8 (12.1)	132 (15.3)	70 (12.9)	202 (14.4)
인격적 소양	35 (15.3)	43 (16.7)	55 (13.9)	23 (13.5)	36 (12.6)	12 (18.2)	115 (13.3)	89 (16.4)	204 (14.5)
전공 분야에 대한 깊은 연 구 활동	33 (14.4)	45 (17.5)	65 (16.4)	36 (21.1)	61 (21.4)	12 (28.8)	132 (21.1)	77 (14.2)	259 (18.4)
학생들과 원만 한 인격적 접촉	114 (49.8)	118 (45.9)	219 (55.2)	89 (52.0)	153 (53.7)	27 (40.9)	425 (49.2)	295 (54.4)	720 (51.2)
지역사회봉사	7 (3.1)	-	-	2 (1.2)	-	-	2 (0.2)	7 (1.3)	9 (0.6)
기 타	-	6 (2.3)	4 (1.0)	1 (0.6)	-	-	7 (0.8)	4 (0.7)	11 (0.8)
계	229	257	397	171	285	66	863	542	1,405

〈表Ⅱ-20〉

좋은 대학의 요건

항 목 별	대 학						성 별		계
	인 문	사회과학	사 법	농 과	해양과학	야간간과	남	여	
훌륭한 교수가 많은 대학	20 (8.7)	33 (12.8)	29 (7.3)	8 (4.7)	14 (4.9)	9 (13.6)	80 (9.3)	33 (6.1)	113 (8.0)
전통이 깊은 대학	4 (1.7)	11 (4.3)	11 (2.8)	1 (0.6)	6 (2.1)	2 (3.0)	19 (2.2)	16 (3.0)	35 (2.5)
좋은 시설 설비 를 갖춘 대학	6 (2.6)	14 (5.4)	19 (4.8)	10 (5.8)	25 (8.8)	2 (3.0)	60 (7.0)	16 (3.0)	76 (5.4)
졸업생의 취업 률이 높은 대학	16 (7.0)	16 (6.2)	12 (3.0)	16 (9.4)	29 (10.2)	6 (9.1)	66 (7.6)	29 (5.4)	95 (6.8)
우수한 학생으 로 구성된 대학	23 (10.0)	11 (4.3)	38 (9.6)	9 (5.3)	7 (2.5)	6 (9.1)	58 (6.2)	36 (6.6)	94 (6.7)
좋은 분위기를 갖춘 대학	151 (66.0)	162 (63.0)	283 (71.3)	122 (71.3)	200 (70.2)	40 (60.6)	560 (64.9)	398 (73.4)	958 (68.2)
기 타	9 (3.9)	10 (3.9)	5 (1.3)	5 (2.9)	4 (1.4)	1 (1.5)	20 (2.3)	14 (2.6)	34 (2.4)
계	229	257	397	171	285	66	863	542	1,405

을 기대하고 있고 인격적 소양을 갖추는 기대에 14.5%, 성실한 강의에 14.4%의 기대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발전될 지향하는 대학으로서 학생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表Ⅱ-20〉은 그 요건을 밝히고 있는데 학생들이 진리를 탐구하고 인격을 완성하며 학문하는 좋은 분위기를 갖춘 대학을 대부분의 학생들은 바라고 있다.(68.2%) 다음으로 훌륭한 교수 확보가 된 대학(8.0%)을 기대하고 있으나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며 그 속에서의 학문연

구와 인격완성,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고 있는 일면이라고 하겠다. 끝으로 신입생들로 하여금 대학발전을 위해 학교당국에 요망하는 사항을 자유스럽게 진의토록 한 결과, 그 반응의 가장 큰 빈도 순으로 정리를 한 것이다.

- ① 학교시설 확충 ② 면학분위기 조성 ③ 버스노선 증차 ④ 도서관 24시간 개방 ⑤ 구내식당 개선 ⑥ 각종 특강 실시 확대 ⑦ 타대학과의 적극적인 교류 ⑧ 씨클활동 활성화 ⑨ 장학금 혜택 ⑩ 훌륭한 교수요원 확보 ⑪ 체육관 마이크 시설 개선 ⑫ 참고도서량 확보 ⑬ 제대신보 질적 향상 ⑭ 고시반 신설 ⑮ 야간강좌 아라동 캠퍼스 이전 ⑯ 향토 문화 발전에 선도적 역할 ⑰ 전과 기회의 폭 확대 ⑱ 기숙사 완비

다음은 교수님들께 요망하는 사항들을 반응의 가장 큰 빈도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① 성실한 강의 ② 학문과 인격의 조화 ③ 학생들과 폭넓은 대화 ④ 전공분야에 대한 깊은 연구활동 ⑤ 과제물 축소

V 조사결과의 요약

1. 실태조사 결과 요약

1) 대학생의 적령을 만 17~19세라고 볼 때 이에 해당하는 학생이 87.7%, 만 20세 이상이 12.3%나 되며 특히 야간 강좌부에는 만 20세 이상의 학생들이 63.6%를 차지하고 있다.

2) 가족들의 주거지별 현황은 제주도가 96.6%, 타지역이 3.4%이며 가족수별 현황은 가구당 5명 이상의 가족을 지니고 있는 가구가 약 90% 정도가 된다.

3) 부모 모두 생존하고 있는 학생이 81.0%, 편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학생이 18.5%가 되며 특히 야간 강좌부에는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4) 부모 또는 호주의 직업별 상태는 ① 농업(55.9), ② 공무원(14.8%), ③ 상업(12.2%)의 순으로 비중을 보이고 있다.

5) 가정생활정도는 상에 속하는 학생이 약 10%, 하정도에 속하는 학생이 31.6%이다.

6) 출신 고교별 소재지 현황은 96.3%가 본도 출신이며 타도 출신 고교생은 3.7%이다. 또한 출신 고교별 계열 비율은 인문계가 76.7%, 실업계가 23.3%이다.

7) 대부분의 학생들이 재수 경험이 없으며(83.8%), 6.2%의 학생들이 재수경험이 있다.

8) 신체상태에 있어서 시력이 0.9이하의 시력을 가진 학생이 32%, 0.4이하가 전체 학생의 10%정도가 된다.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시력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며 따라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학생이 25.5%나 되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안경을 많이 착용하고 있다.

(35.2%) 신장은 160~169cm까지 45.0%이며 170cm 이상이나 되는 학생은 30%나 된다. 체중은 50~59kg이 평균 체중치(52.2%)이며, 흉위는 93cm 이상이 15.3%, 81cm 이하가 30.8%를 차지하고 있다.

9) 학생들의 건강상태는 대체로 건강한 편이나(94.2%), 허약한 학생이 5.8% 정도 있다.

10)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교 재학시 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60.6%), 실시했다 하더라도 적성검사가 대부분이었다.

2. 意見調查 結果 要約

1) 본 대학에 입학하게 된 가장 주된 요인은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22.8%)이며 입학이 용이(21.4%)한 점을 들고 있다.

2) 본교 지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으로는 자기 자신 스스로 학교 선택을 하였으며(44.2%), 가족들의 권유에 의해(37.0) 결정되었다.

3) 고교 재학시 희망했던 계열(학과)과 현재 입학한 계열(학과)과의 일치 정도에는 학교와 학과가 모두 불일치가, 28.4% 모두 일치가 27.2%를 나타내고 있다.

4) 전공계열(학과)을 선택한 이유로는 적성과 흥미에 따른 선택이 가장 많고(48.5%), 다음이 직업적 전망에 의한 선택을 들고 있다.(16.6%)

5) 입학한 전공계열에 대한 만족정도는 70.0% 만족을, 9.5%가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야간강좌에서 83.3%의 학생이 가장 불만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불만의 이유로는 적성·흥미가 맞지가 않으며(24.0%), 1차 지망학과가 아니고(19.7%), 장래 전망이 흐리다(14.0%)는 이유를 들고 있다.

6) 전과나 편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18.9%나 되며, 앞으로 유동성을 보인 학생이 32.8% 보이고 있다.

7) 전공계열(학과)에 대한 이해 정도는 보통으로서 대강 알고 지망한 학생이 71.8%이며 이해 정도가 낮은 수준에서의 지망이 17.0%로서 이해도가 낮은 편이다.

8) 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또는 예상되는 중요 문제를 반응빈도의 우선 순위로 정리하면 ① 학업문제(40.3%), ② 경제문제(36.9%), ③ 진로문제(36.4%), ④ 사회적 적응(26.7%), ⑤ 건강문제(16.0%)의 순으로 문제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9)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한 의논 대상은 ① 친구(27.9%), ② 지도교수(22.6%), ③ 가족(17.0%), ④ 선배(14.8%)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10) 씨클활동의 참가여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존의 씨클들의 활동실태를 파악한 후에 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70.2%) 또한 희망하는 씨클들

의 반응 빈도를 세 가지만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① 교양(21.4%), ② 학문(15.2%), ③ 봉사(14.5%) 썩클이다.

11) 대학생활 동안의 부직을 희망하는 학생이 전체 학생 중 약 80% 학생들이 부직을 희망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서는 사회생활의 전문을 넓히기 위해서(35.7%)와 잡비 마련을 위해서(20.8%), 그리고 학비마련과 자립정신을 기르기 위함에 있는 것이다.

12) 대학생활을 위한 계획 수립이 38.6%의 학생은 수립되어 있으나 나머지 학생은 수립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대학졸업 후의 계획을 우선 순위로 정리하면 ① 취직·사업(37.0%), ② 대학원 진학(36.0%), ③ 미정(13.3%)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13) 학생들이 구상하고 있는 이상적인 대학생활은 인격을 도야하는 일이며(54.6%) 또한 학문을 연구하는(32.6%) 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인식하고 있다.

14) 학생 자신이 대학생활동안 성취해야 할 목표를 인격완성에 두고 있으며(29.0%)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21.4%), 폭넓은 교양을 습득하는 일(20.7%)에 두고 있다.

15) 학생들은 교수님들께 교수—학생간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으며(51.2%), 전공분야에 대한 연구활동(18.4%)과 인격적소양(14.5%)을 갖추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16) 본교 신입생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대학상은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며 그 속에서 학문연구와 인격을 완성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분위기가 갖추어진 대학을 염원하고 있다.

研究所 活動 實績

<1981學年度>

1. 個人 相談

어떤 問題에 대해서 고민하는 學生들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個人相談을 '81年 3月부터 '82年 2月까지 794名の 學生들과 相談하였다.

2. 心理 檢査

188名の 學生들에게 心理檢査를 실시하여 學生들의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검사종류 학 년	자 아 개 념 (명)	인 성 (명)	홍 미 (명)	계 (명)
1	20	18	14	52
2	35	40	36	111
3	7	8	4	19
4	2	2	2	6
계	64	68	56	188

3. 調 査 研 究

1. 新入生 實態調査 研究

大學에 새로이 入學하는 學生들에 관한 각종 資料와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分析하여 本大學의 學生指導를 위한 계획수립과 實際指導에 必要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新入生 實態調査를 실시했다.

2. 濟州大學校 學生生活 實態 分析

本大學 在學生들의 精確한 實態를 파악하고 그 結果를 分析함으로써 學生個人的 자기 이해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教育 및 學生指導에 必要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學生生活 實態를 分析했다.

4. 特 別 行 事

- 1) 新入生 오리엔테이션 실시
- 2) 계절별(1學年) 학과비정에 따른 오리엔테이션 실시
- 3) 씨클지도교수 간담회 개최
- 4) 씨클대표자 연수회 개최
- 5) 동계방학 중 TOEFL 강좌 개설
- 6) 특별강연회 개최

— 연제별 특강 실적 —

월 일	연 제	연 사
3. 12	새로운 이데올로기 교육의 방향	고 성 준 교수
3. 12	여학생과 대학생활	홍 양 자 교수
5. 21	한국전통문학에 나타난 한국의 여성상	이 남 덕 박사
5. 12	미국의 대학생들	송 필 순 박사
5. 27	한국의 선사상	서 경 보 박사
11. 2	산다는것	법 정 스님
"	인간의 가치	석 대 효 스님
11. 23	한국과 세계 에너지 문제	H · GLUBRECHT 박사

5. 學 生 副 職 알 선

'81年 6月부터 '82年 2月까지의 副職희망 學生數는 694名인데 그 중 390名을 알선하여 56.2%의 취업률을 나타냈다.

구 분	부직희망 학생수	취업 학생	취업률
성 별	(명)	(명)	(%)
남	344	259	75.3
여	350	131	37.4
계	694	390	56.2

〈1982學年度 上半期〉

1. 個人 相 談

'82年 3月부터 '82年 9月까지의 個人相談 學生數는 623名이었다.

문 제 영 역 별	상담학생수(명)
부 직	5 5 2
진로 및 취업	3 2
학 업	2 1
해 외 유 학	7
기 타	1 1
계	6 2 3

2 小集團 固定 相談制 運營

學生들이 관심있는 分野를 문제영역별로 선정해서 小集團 固定 相談制를 運營하고 있다.

요 일	문 제 영 역 별	상 담 교 수	시 간
월	해 외 유 학	김재하, 학생생활 연구소 직업보도부	15:00~16:00
화	성격과 적응	강창혁, 허철수	12:00~13:00
수	여학생문제	김양순, 박경훈	14:00~15:00
목	대학생활의 적응	강순선, 황언택	11:00~12:00
금	진로 및 취업	신행철, 학생생활 연구소 직업보도부	17:00~18:00

3. 調 査 研 究

1) '82學年度 新入生 實態調查 研究

2) 씨클活動 및 問題点 分析

現在 씨클活動의 활동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등을 分析하여 보다 바람직한 씨클 活動 方向을 모색하기 위해서 씨클活動 및 문제점을 分析하였다.

4. 出版普及

1) “大學生活”發刊(1982. 2. 25)

'82學年度本大學에入學하는新入生들에게大學生活에보다신속한적응능력을배양하고大學의教育目的, 전통및학사제도전반에관한이해를증진시키기위한지침서로“大學生活”을發刊하여新入生전원에게배부하였다.

2) “就業案内”發刊(82. 7. 1)

졸업을앞둔學生들에게졸업후進路問題에대해보다종합적이고구체적인情報를제공해준과동시에면학분위기를조성하고就業를촉진시키기위해서“就業案内”를發刊하여3·4學年學生전원에게배부하였다.

3) “學生生活研究”誌發刊(1982. 10. 30)

1981年과1982年上半期까지의學生指導와相談, 研究및학생복지에관한諸般活動을하면서얻은資料를종합분석하여그結果를學生指導資料로活用하기위한“學生生活研究誌”를發刊하였다.

5. 特別行事

1) 新入生 오리엔테이션 실시

2) 視聽覺教育映畫 상영

學生들의영어실력향상을위해영국문화원과의협조를얻어視聽覺教育映畫를7회에걸쳐서상영했다.

내용: ① York and it's university

② Miracle of youth

③ Artist speaks

④ Five British Sculptors at work

⑤ Using magazine pictures

⑥ Speaking English

⑦ Scott's last journey

3) 道内 中·高等學校 카운슬러教師 研究所 초청

① 학생생활연구소 기능 및 활동 소개

② 학생지도 방향에 관한 대화

③ 학생생활연구소 안내자료 배부

4) 하계방학 중 특강 개설

지연제일 1學年 學生들 중 많은 學生들이 수학과 화학 강좌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에 따라서 하계방학 중 영어(TOEFL), 수학, 화학 강좌를 개설하였다.

5. 學生 副職알선

1) 하계방학 중 副職알선 실적

하계방학 중 副職희망 學生數는 525名인데 325名이 취업을 해 61.9%의 실적을 나타냈다.

구분 성별	부지희망학생수 (명)	취업학생 (명)	취업률 (%)
남	264	235	89.0
여	261	90	34.5
계	525	325	61.9

2) 副職알선에 협조해 주신 각 기관장들께 감사편지 발송 ('82.8.30)